



선민정 작 '산책길'



정경자 작 'Drifting_12'

주목받는 지역 젊은 작가 한자리에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 9월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노은영·유지원·서영기 작가 등 8명 서양화·한국화·사진·설치작 등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공모 방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온 광주신세계 미술제는 개인전 개최 등 차별화된 작가 지원과 공정한 심사로 호평을 받아왔고 선정작가들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특히 선정작가들이 진행하는 수상기념 개인전은 작가의 새로운 시도와 고민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언제나 기다려진다.

제 2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이 오는 9월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 미술제는 참여 작가들이 제작해 온 기존 작품과 함께 작품에 대한 설명, 수상작가 개인전의 구체적인 전시 계획을 제출하는 전시기획안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모두 61명의 작가가 도전장을 던졌고, 개별 온라인 심사와 미술계 인사로 이루어진 외부심사위원회의 협의심사를 거쳐 1차 선정작가로 모두 8명을 뽑았다.

선정작가는 서양화, 한국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서양화가 노은영 작가는 현대인들이 잊고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를 집꾸러 숲 등 자연의 풍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설박 작가는 먹의 농담이 전하는

자연스러운 변질과 자유로운 한지 플라주로 다채로운 산세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최근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유지원 작가는 사회 안에서 버려지거나 무시되어 온 공간(장소), 오브제 그리고 존재 또는 기억과 역사의 흔적들을 소재로 작업한 설치 작품을, 사진작가 이세현은 세계 각국의 역사적인 현장과 그곳에서 하늘로 던져 올린 돌 조각의 움직임을 함께 포착한 일련의 작업을 선보인다. 그밖에 서영기·선민정·송석우·정경자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를 통해 선정되는 대상과 신진작가상 수상자는 23일 광주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대상 작가에게는 상금 1000만원, 신진작가상에게는 500만원이 수여되며, 이들에게는 별도의 창작지원금 지원을 통해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리꾼 베토벤, 모차르트를 노래하다

스윗뮤직가든 클래식·국악 크로스오버 공연...28일 광주북구문화센터

'소리꾼으로 돌아온 베토벤' 클래식과 국악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스윗뮤직가든(대표 송선미)이 3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소리꾼이 들려주는 클래식Ⅲ- 베토벤 이야기'가 오는 28일 오후 5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고전시대 위대한 작곡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삶을 판소리로 들려주고 보여주며 클래식과 국악의 색다른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지난 2020년 시작해 3회째를 맞았다.

1770년 고전시대에 낫병을 앓은 베토벤이 2022년 소리꾼 베토벤으로 환생해 자신의 연주회에 초대된다는 설정이다. 베토벤은 자신의 연주회에서 자신의 일생과 작품들에 대한 회상을 시작



윤세민



송선미

으로 베토벤의 사랑과 고뇌, 음악인생 그리고 2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소리꾼 베토벤이 바르본 동시대의 음악전제 모차르트의 음악인생과 주옥같은 작

품을 구수한 판소리로 관객들에게 전한다.

이번 공연에서 들려줄 곡은 '그대를 사랑해(Ich liebe dich)', 모차르트의 가곡 '무이제가 사랑의 편지를 태울 때', 베토벤 '월광소나타'와 '비창소나타', 'G장조 미뉴엣', '터키행진곡', '엘리제를 위하여', 오페라 '피델리오',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 연주되며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제6번 전원', '제9번 합창'을 하나의 메들리로 편곡해 연주한다.

피아노 김유미·이주영·이미란·김미리·김라하·오지영, 바이올린 홍빛나, 첼로 윤지혜, 바리톤 박 설, 메조소프라노 김잔희, 소리꾼 윤세민, 고수 박상준, 신디 김성종이 함께한다.

사전예약제이며 전석 1만원. 문의 010-9474-4449.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케세라세라! 치유와 위로의 시간

미디어·회화·입체조형물 등 서은선 개인전...26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석고봉대로 만든 'moon'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서은선 작가 개인전이 오는 26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월 대로 데라,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뜻의 스페인어 '케세라세라(Qu ser, ser)'.

자신의 작업에 대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치유가 되지 않는 시간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을 아픈 시간에 가둔 사람들을 위한 애도"라 표현하는 작가는 2m 크기의 거대 풍선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작품, 회화 작품, 150여개의 작은 입체조형물을 전시한다.

작가는 미디어 작품이 상영되는 커다란 별문을 슬픔의 눈물 덩어리일 수도,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의미와 간접함의 상징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moon'을 구성하는 지름 20cm의 공 100여개는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점차 단단하게 굳어가는 석고봉대의 성질을 활용한 작품으로 아픔을 흘려보내고 단단해진 내면이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Hollow City'

또 전시장에 함께 전시된 '싱잉볼(singing bowl)·히말라야 지역의 명상하는 도구)의 은은한 진동을 통해 또 다른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시장에 마련된 소원카드에 원하는 소원을 쓸 수 있고, 이제는 흘러가버렸으면 하는 아픔을 적고 물감을 흐르게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저탄소 생활 실천과 물 문화 배우다

영산강문화관, 9월까지 강문화체험·현장 생태 교육

K-water 영산강보관리단·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영산강문화관이 비대면 영산강문화체험(키트 제공)과 현장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과 체험을 제공하는 영산강 문화체험은 영산강 물길을 따라 형성된 남도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소재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 '영산포 황포돛배·황토염색', '회산 백련지 연꽃·연화도 파우치' 2개로 구성돼 있다.

연계 체험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황토염색 손수건 만들기'와 '연화도 파우치 만들기'다. 체험비는 무료이며 온·오프라인 신청자에 한해 교육키트 약 200개를 제공한다.

영산강문화관은 또 오는 9월3일부터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영산강블리츠(Blitz)'도 운영한다.

'영산강블리츠(Blitz)'는 영산강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함으로써 생물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환경부 주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돼 올해로 3번째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오는 1월 5일까지 격주 토요일(6회 운영) 오후 2시 영산강문화관 인근 강변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총 6회의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환경부 인증 활동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사 마감.

영산강문화관 네이버 카페 참조. 문의 061-335-0866. /김미은 기자 mekim@



'영산강블리츠' 활동 중 풀솜 아티스트 짓기.

<영산강문화관 제공>

김승옥문학상 대상에 편혜영 '포도밭 묘지' 선정

올해 김승옥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소설가 편혜영(사진)의 '포도밭 묘지'가 선정됐다고 주관사인 문학동네 출판사가 19일 발표했다.

김승옥문학상은 1960년대 대표 소설가 중 한 명인 김승옥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2013년 제정됐다. 2019년부터는 순천시 지원으로 문학동네가 주관한다.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로 등단한 편혜영은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소설집 '아오이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가다', 장편소설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를 펴냈다. 대상 상금은 5000만 원이다.



'포도밭 묘지'는 1990년대 후반 함께 '여성(여자산업고등학교)을 졸업한 네 사람이 이후 삶의 현장에서 고졸 출신 여성 청년으로서 살아야만 했던 삶을 그린 소설이다.

각 상금 500만 원을 주는 우수상(본선 진출작)은 구병모, 김애란, 김연수, 문지현, 백수린, 정한아가 받는다. 수상작들은 다음 달 출간되는 '2022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실린다.

/연합뉴스

교육형 투어 '광주사람, 광주여행' 참가자 모집

광주관광재단 선착순 400명

광주관광재단 교육형 투어 프로그램 '광주사람, 광주여행' 참가자를 선착순 접수받는다.

'광주사람, 광주여행'은 관광학계 전문가의 재밌는 강연과 더불어 매력적인 광주 관광지를 직접 투어하며 이론과 현장실습이 어우러진 교육형 투어 프로그램이다.

선착순 400명 접수하며 10월까지 매주 주말 당일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나뉘어 운영된다. 당일코스는 1인당 1만 원, 1박 2일 코스는 1인당 3만3000원으로 광주 곳곳을 보고 배우며 여행할 수 있다.

투어 코스는 전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잘 알려진 관광지, GMAP센터, 극락강역, 월봉서원 등 광주의 숨겨진 명소를 직접 찾아 관련 지식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약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사람, 광주여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62-522-7115로 전화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모집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진출)이 전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모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제공해 문화·관광·체육활동에 사용토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등록된 가맹점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전남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12만 6950명인데 반해 사용이 가능한 도내 가맹점은 155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가맹점 대부분이 도서, 읍면 등 일부 품목에 집중돼 있다.

이에 재단은 도내 2200곳에 가맹점 가입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주는 동봉된 안내문을 따라 신청하면 되며 전남문화재단 문화복지TF팀(061-280-5847, 58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34번째 사랑의 콘서트

빛고을예술단 27일 평민마을



(사)빛고을예술단(단장 나덕주)이 오는 27일 오후 6시 남구 양림동 평민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734번째 사랑의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만나볼래요'를 부른 가수 진이랑(사진)과 '앵콜'의 김동규를 비롯해 청소년들로 구성된 퓨전밴드 '더블유어즈', 지스타 퓨전난타, 가수 김성원,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폼바' 공연, 박용주 음악감독의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빛고을예술단은 지난 2005년 8월 빛고을문화예술봉사로 창립된 이후 '사랑의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